강풍… 폭우… '꽃샘 추위'

광주·전남, 담장 붕괴·간판 추락 등 잇단 피해

최고 90㎜ 이상 큰 비

항공기·여객선 결항도

무너진 담장 광주시 동구 운림동 광주시과학교육원 공사 현장 펜스와 담장 200여m가 4일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광주·전남 일원에는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과 한랭전선이 세력을 합치면서 이날부터 올 들어 가장 센, 초속 14~20m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6일)을 앞두고 때아닌 강풍과 꽃샘 추위가 몰아치고 있다. 여수시·광양시·순천시·구례군 지역은 4일 오후 6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으며 곳에 따라 최고 9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앞서 이날 낮 12시15분을 기해 광주와 나주·장성·고흥·장흥·강진 일원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했다. 예상 풍속은 초당 14~20m로, 6일 낮에나 해제될 전망이다. 대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경보(초속 21m 이상)가 내려졌다.

서해남부 모든 해상과 남해서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또 해상에 일고 있는 3~4m의 높은 파도로 섬지역을 연결하는 51개 항로 중 26곳의 여객선 발이 묶였다.

하늘길도 막혀 4일 오후 6시 현재 ▲광주공항 4 ▲목포공항 2 ▲여수 1편 등 총 7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보잉 737의 경우 옆바람(cross-wind)이 초속 30노트(14.3m) 이상일 때 운항이 중단된다.

올들어 가장 센 강풍으로 광주시 동구 운림동 광주시과학교육원 공사 현장 펜스와 담장이 20여m 가량 무너졌다. 또 오후 4시께 광주시 북구 유동 SK텔레콤 간판 등 모두 7곳의 간판이 떨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이유는 서해상에서 발달된 저기압과 한랭전선이 세력을 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 담양·곡성·구례·화순·보성·광양·순천 등지도 4일 밤부터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또 호우 예비특보도 발효돼 5일 밤까지 광주·전남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40~90㎜의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3월 중 우리나라는 대륙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고 일교차도 클 것이기 때문에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꽃샘 추위와 함께 봄의 불청객인 황사도 자주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광주 극락대교는 순간 최대 풍속 30m까지 견딜 수 있으며, 광주에서 가장 높은 양동 금호생명 빌딩은 좌우로 50㎝ 흔들린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장교(斜張橋)인 진도대교의 내풍(耐風) 한계는 34m다. 1905년 영국 해군제독 보퍼트(Beaufort)가 만든 풍력계급에 따르면 초속 28.5~32.6m면 건물이 크게 부서지고 차가 넘어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목포~제주 여객선 화재

신속 대피 인명피해 없어

목포를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4일 오후 2시20분께 제주시 북쪽 7.4㎞ 해상에서 제주항으로 운항 중이던 뉴씨월드고속훼리(8천944t·선원 22명) 4층 주방에서 불이나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씨월드고속훼리㈜ 소속인 이 여객선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목포항에서 여객 226명과 차량 102대, 화물 300여t을 싣고 제주로 가던 중이었다.

불을 처음 본 조리사 조모(여·44)씨는 "주방 옆 부식창고에 있는데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나 확인해보니 주방에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차 있어 비상벨을 눌렀다"고 말했다.

불이 나자 선장은 방송을 통해 4층 특등실과 3등실 등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아래층 화물칸으로 대피시킨 뒤 승선원들을 동원, 선박 내 소방호수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 불이 난 선박은 이날 오후 2시55분께 제주항에 입항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받은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와 제주해양경찰서는 소방차 12대와 구급차 2대, 특공대를 긴급 출동시켰으나 자체 진화되자 철수했다.

제주해경은 조리사들로부터 이날 오후 1시40분께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요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상황을 조사 중이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軍 훈련 부상 경미해도 국가 배상"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군대에서 훈련 중 부상을 당해 전역했으나 다친 정도가 경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박모(2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1년 해병대에 입대한 박모씨는 그 해 8월 헬기 공중기동훈련에 참가한 뒤 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하차명령에 따라 완전군장상태에서 수송트럭 뒷문을 열지 않은 채 뛰어내리다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2002년 1월 전역했다.

박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부상이 경미해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법원에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속 부대 지휘관은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 하차과정에서 부상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원고가 부상을 입은 후 3주 가량이 경과하기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아 부상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우찬

영암서 화재 70대 숨져

4일 오전 8시52분께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이모(75)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방안에 있던 이씨가 숨졌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국제우편 통해 히로뽕 밀매

쌍나팔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에서 히로뽕을 몰래 들여온 뒤 퀵서비스를 통해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씨는 지난 달 하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의 히로뽕 판매책의 계좌로 텔레뱅킹을 이용해 수백만원을 입금하고 국제우편으로 히로뽕 10여g(시가 3천500만원)을 배달받았다는 것.

○…이씨는 구입한 히로뽕의 일부를 평소 알고 지내던 A(40)씨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무료로 주고 나머지는 판매했다고.

/연합뉴스

작년 범죄 189만여건

검거율은 20년만에 최저

1976년 이후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3.7배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재산범죄 3배 증가** = 4일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976년 50만4천여건에서 2005년 189만3천여건으로 약 3.7배 늘어났다.

반면 검거율은 1979년 사상 최저치인 79.9%였다가 1985년 85.5%를 기록한 이후로는 줄곧 87% 이상을 유지했지만 2005년 들어 85.7%로 20년만에 가장 낮았다. 1976년 14만여건이던 재산범죄 건수는 2005년 44만여건으로 3배 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검거율은 77%에서 64.7%로 감소한 것이다.

◇ **경제범·외국인 사범도 증가** = 조세범죄는 1996년 603건이었다가 2005년에는 7천102건으로 10배, 외국환 사범은 같은 기간 421건에서 2천772건으로 7배 늘었고 41건이었던 증권거래법 위반 범죄도 15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05년 말 현재 불법체류자가 18만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수는 8천313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15.9% 늘었다.

◇**기소율 52%, 구속비율 감소** = 2005년에 검찰에서 처리된 사건 196만여건 중 52%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으며 이 중 5.28%만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

광주 편의점 강도 검거

20대 "생활비 없어 범행"

광주 광산경찰은 4일 손님을 가장한 뒤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박모(25)씨를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49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M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사는 척하다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4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광주 모 건설자재 공장에서 일하다 최근 다리를 다쳐 회사를 퇴사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박씨의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지 5천 매를 배포한 뒤 탐문수사 끝에 시민 제보를 받아 박씨를 검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